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불당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717호 현대불교
2009년 2월 4일(음력 1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17

봄이 오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날!

무엇보다도 여러분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따뜻하게 앉아서 서로 밥담을 나누게 해 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탓으로 여러분을 좁게 해 드려서 진정 마음이 아픕니다. 올라오면서 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안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좀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떠돌기 시작했던 아홉 살 때 이후, '그때는 셔츠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출갓만 입고 돌아다닐 수 있었더라. 그래도 왜 출다는 생각이 없었더라. 미쳤을까. 미쳐서 그런 거를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추운 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죄송합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공부를 하는 데 그런 고난도 없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죠. 입춘이라고 한 그 뜻은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말이 됩니다. 뜻이 되고요. 형체적인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또 우수에는 입을 댄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 말을 하고, 말을 하면 움직여가는 게 되는 것이 우수, 경칩이죠.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봄이 오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날이고, 입이 트이는 날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경칩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름은 있되 이름 없는 이름이기에 힘이 없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도 그냥 공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알고 본다면 이름도 참 천차만별로 많지만, 그 이름대로 자기의 차원과 모습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줄과 인간의 근본의 줄이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그 도리가 항상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 법계에서 다 알게끔 돼 있고 거기서 차원이 정해지죠. 근본에서 차원이 정해지고, 근본에서 알고, 근본에서 아는 것을 우주 법계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대로 입력이 돼서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온단 얘기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서 미래를 돌아서 현재를 돌아서 오면... 우리는 이 현재 땅덩어리에 있지만 근본 마음의 영혼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

아오고 돌아가고... 짐승같이 살면 짐승의 모습이 될 것이고, 사람같이 산다면 사람의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올 것이고, 짐승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다 놓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에는, 그냥 우주간 법계에서 인도를 해 가지고 모든 게 그저 자동적으로 인도가 돼서, 차원이 높게 모습을 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고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또 형성되죠.

그러니까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누가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팔자 운명을 겪고, 또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팔자 운명이 없이 자유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공부를 하셔야 이 도리를 완전히 터득을 합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먹어 본 적도 없고, 먹고 싶어 해 보지도 못한 것은 무슨 일이 왕창 생겨도, 몰라서 해결을 못하고 맙니다.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융통성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누가 책에서 가르쳐 주고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아, 요런 건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요건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마음의 물리가 터지면 그렇게 다 용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이렇게... 용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여는 날이니까 여러분이 되는 거든지 안 되는 거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허허. 질문하는 날이 따로 있고 질문 안 하는 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있는 날이니... 우리가 좋은 것만 어떻게 질문하리까. 조그맣고 크고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요 앞을 내다보는 거나, 여기에서 우주를 보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도리를 알아야,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건만, 공해서 참나참나 화(化)해서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여한 걸 모르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배우려면 모든 것을 이 마음으로 들이고 내야 합니다. 인쇄 하나까지도, 그 나뭇가지의 털 하나 난 것까지도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이지 떼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마음을 내고 들이고, 가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나가서 토론하고,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그림 · 최주현

그 전체 도리가 뿌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리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보니까 이거는 안됐다 잘못됐다. 남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틀리다 옳다. 또는 말을 하는 게 아주 옳은 일이다,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일일이 따져서 생각 마세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잘된 거든 잘 안된 거든, 입든 곱든, 길든 짧든, 못났든 잘났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모든 것은 무조건 거기에다 놓고 그저 무조건 입력을 하세요. '너만이 현 물이 새 물이 되게 할 수 있어!' 하고요. 이것은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이기 때문에 무한량 바꿀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느 집에 사람이 살러 들어가지만 하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그 집을 싸게, 반값에 사 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집을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산다면 한 반절밖에 주지 않을 텐데요.' 하기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저 있는 것들은 모조리, 천 개도 좋고 만 개도 좋

고, 허허허... 심만 개도 좋으니까 한도량에 있는 거, 몽땅 그냥 거기가 한바다에 집어넣듯 집어 넣어 보라. 헤어질 수 없는 물방울이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바다지 물방울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지 않는다. 다 집어넣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를 가서 사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라. 금방 한 사람의 사람이 돼서, 또 사람은 도로 사람이 돼서, 수레바퀴에 둘러져 가지고 재성이 돼서 나갔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의 마음속을 돌아서 한번 그렇게 받아와 가지고, 그 약한 마음을 다 녹아지고 얼마나 좋게, 두려움이 없고 인간의 나쁜 마음의 기운이 없이, 그저 자비하고 인정 많고 권위 있게 세상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나가게 됐으니, 몸에서 고맙다고 그냥 배사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참, 의인을 만나서 좋은 길을 걷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잘 사시라고 그러고선 이만한 구슬 하나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사람이

죽기는커녕 잘되니까, 판 사람이 배가 아플 것 아 납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값을 더 준대도 안 팔고 오히려 그 집이 낡았으니까 월고선 다시 집을 짓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물방울이 수백 개, 수만 개라도 한 그릇에 넣으면 한 그릇의 물이지 만 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일 불(佛)입니다. 일 불!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법당에 부처님을 천 불을 해 놓거나 만 불을 해 놓거나, 이 부처 저 부처 많이 해 놓으면 머리가 산란해서 공부를 못 하죠.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신중이니 독성이니 칠성이니 지장이니 관세음이니 할 것 없이, 만 불이니 천 불이니 할 것도 없고 마구니들도 아주 줄 아니게 다 그냥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걱정도 없죠.

산 사람은 모습이 있고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은 모습이 없는 바람에 모습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동등으로 쳐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치는 사이 없이 치고 맞는 사이 없이 맞았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치게 해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고, 열쇠를 받는 것도 그런 거를 다 알아서 능통하고 모두 마구니도 돌 아니게 볼 줄 알고, 자기 아님이 없이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게 돼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미에 맞지 않으면 툭 때려서 못 쓰게 만들고, 또 자기한테 맞지 않고 미우면 그냥 록 때려서 파산을 시키고 이런단면 어떻게 그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막론하고 예쁘든지 밍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와 돌 아니게 보고 자기 아님과 돌 아니게 보고, 자기 부모 아님이 없고, 자기 자식 아님이 없고, 자기 형제 아님이 없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한바다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항상 문을 열고, 우리가 인생 한 철 사는 거를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옛날에 다니다가 그냥 허기가 저서 땅을 엉금엉금 기어가서 흐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데, 그 한 모금을 마신 뒤에 두 모금째는 딱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한 모금은 마셨는데 왜 두 모금째는 마시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냥 비호같이 부처님의 재적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

18면으로 계속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릅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無子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 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 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출강 및 통신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8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④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성 보호반독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가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2009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사무국(우편·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자동 110-30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